

우편사업개시 500주년 기념식전 거행

-독 일-

서독에서는 우편사업개시 50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되었다.

1490년 7월14일 당시의 신성 로마황제 맥시밀리언은 칙명을 내려 古都슈페이여에 우편배달을 위한 騎馬의 使者 한사람과 徒步의 使者 한사람을 두도록 명했다. 합수부르그家領, 부르고뉴지방과 화란을 통치한 맥시밀리언은 인스부룩과 메히렌과 사이에 통신연락망을 설치하여 기마대를 상주시키로 했다. 이것이 우편사업의 시초라고 한다.

이 연락망은 당초 왕실의 우편전용으로 360년간이나 톨룬家和 타키시스家が 우편물의 운송을 청부맡고 있다가 1866년부터 郵電省의 전신이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0년 1월 1일 500년 기념행사로 개막된 기마대의 행진은 500년 전처를 인스부룩에서 메치렌을 향해 우편기수가 출발하여 全長 1,250킬로미터를 6일 반에 걸쳐 행사가 치루어졌다. 그리고 여름에는 역순으로 5일 반에 걸쳐 답과했다.

시대에 따라 루트는 여러가지로 변한 것 같으나, 이번에는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코스에 선정되었다.

남성기수, 여성기수 혼성 팀을 편성하여 하루에 약 200킬로미터의 페이스로 주파하였다. 기수 중에는 현직의 郵電省직

원도 있고 대부분의 기수가 자기 말을 타고 참가하였다.

우체국에서는 이 루트에 해당하는 마을에서는 기수가 방향을 틀리지 않도록 방향의 큰 길가 근처에 많은 사람이 죽 늘어서서 환영을 겸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각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의 게시판에 기념축제 騎馬과발의 방향과 통과예정시각 등이 게시되었다.

또한 각 우체국에서는 과발카드에 스탬프가 찍혀졌다. 이것은 1990년에 역사적인 통신경로를 연결한 증거가 되어 郵趣家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귀중한 증명서의 複製는 3매의 과발카드로 하여 판매되었다.

이 밖에 베를린의 국립 프로세인문화박물관소장의 A·둘러의 銅版畫 「작은 우편배달원」을 도안으로 하여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는데 같은 도안의 우표가 벨기에, 헝가리, 동독에서도 발행되었다.

본의 기념식전에서는 8개소에 설치된 스크린에 42대의 영사기를 사용하여 우편마차시대로부터 통신위성이나 디지털통신망을 이용한 현대까지의 변천을 4천이 넘는 슬라이드로 소개하여 서독우편사업 수준의 질을 과시하였다.

(우정, 1990. 4)